

김정은최고령도자는 강대성의 상징이시다

로씨야신문, 인터넷들 특집

로씨야신문, 인터넷들이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사진문헌들을 모시고 《조선의 정치방식》, 《환하신 미소》, 《조선의 승리》 등 제목의 글들을 특집하였다.

신문 《에르브 이 플로트》는 경에 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우리 나라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커다란 성과들이 연이어 이룩되는데 대해 서술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은동지의 업적중의 업적은 국가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을 성취하신것이다.

조선은 미국본토도 임의의 손간에 타격받을 수 있는 핵강국, 로켓강국의 지위를 당당히 차지하였다.

이로써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수 있는 보검이 마련되게 되었다.

조선은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이 반격같이 다져진 나라이다. 미국은 이것을 뜻바로 알아야 한다.

인터넷신문 《에지나야 꼬레야》, 인터넷홈페이지 《그리폰 브레드씨즈》는 제재속에 서도 날로 발전하는 조선의 모습이 국제사회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수준 돌파, 비상한 속도 등을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의 창조방식으로 평하였다.

인터넷신문 렌다. 루는 조선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각하께서는 이 나라의 공식출판보도물들이 전하듯이 정치, 군사뿐아니라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도 현지에서 지도해주신다고 하면서 수많은 인민사랑의 전설들로 수놓아진 그이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하였다.

인터넷홈페이지 《오늘의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오늘날 행성에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분은 다름아닌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다.

그이의 품고는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이시야말로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분이시다.

령도자가 위대하여 조선은 온 세상이 놀라와 감탄하는 위대한 나라로 존엄떨치고있다.

해빛처럼 밝은 세상, 그늘이 없는 행복의 무릉도원을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가꾸어나가신다.

세상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에서 력사의 시련과 모진 광풍속에서도 추호의 등요없이 불의를 짓부시며 강대해지는 정의의 힘을 보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는 불가능을 모르고 언제나 백승만을 펼치시는 강대성의 상징, 희세의 위인이시다.

위대한 정치가, 결출한 령도자에 대한 만민의 애호와 찬탄의 열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있다.

인터넷홈페이지 《빠트리오르 모스크바》는 이런 글을 편집하였다.

세계언론들의 보도를 통해 사람들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환하신 미소를 자주 비움게 된다. 사람들을 끝없이 매혹시키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미소에는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깃들여져있다.

또한 조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확인하시는 강자의 여유가 담겨져있다.

지금 세계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이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자신감에 넘쳐있는 미소에서 보다 부강번영할 조선의 래일을 보고있다.

인터넷잡지 《리브저널》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하시고 빛내어오신 승리의 전등이 경에 하는 원수님의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있는데 대해 전하면서 결출한 수령의 령도와 수령께 충직한 인민의 힘에 조선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희세의 위인을 모시여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외국인들의 반향

조선로동당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응축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참관한 외국인의 벗들이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로씨야연방 레닌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 단장 울라지미르 이싸코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그 훌륭함을 말로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마음껏 노래부르고 춤을 추는 조선소년단원들이 정말 부럽다.

다른 나라 정부기관장들도 아마 이렇듯 웅장하지 못할것이다. 이런 멋있는 건물을 통해서 아이들이 리용한다고 하니 믿어지지 않는다.

조선의 어린이들은 훌륭한 교육조건을 갖춘 궁전의 소조실들에서 돈 한푼 내지 않고 자기의 재능과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고 있다.

이것이아말로 후대들을 위해서라면 천만금도 아끼지 않는 조선식사회주의와 황금만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와의 차이이다.

조선은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된 나라, 아이들의 천국이다.

동해명승지에 훌륭히 일떠선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본 수리아 바야스소년선봉대표단 단장 왓다흐 싸와쓰는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인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행복할 나날을 보내며 마음껏 노래부르고 춤을 추는 조선소년단원들이 정말 부럽다.

참관을 통하여 조선의 학생소년들이 즐겨 부르는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아영소로라는 노래구절의 참 뜻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

다시 태어날수만 있다면 조선의 아이들과 함께 여기 송도원에 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싶다.

학생소년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로 여기고 보살피시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머리숙여 인사를 드린다.

민중광고대학생 및 학생련맹대표단 단장 응봉고 네 콩고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짧은 기간에 웅장하게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은 참으로 훌륭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어른들뿐아니라 학생소년들도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있는 이곳은 말그대로 과학의 대전당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능력과 교육조건을 원만히 갖춘 배움의 전당에서 어린이들까지 열심히 학습하고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느긋지는바가 크다.

학창열에 불라는 이들의 모습에서 머지않아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으로 세계민방에 빛을 뿌릴 조선의 휘황찬란한 미래를 보았다.

숭고한 미래관, 후대관을 천품으로 지니신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시여 조선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

본사기자

북남 실무 회담 진행

공화국의 제12차 겨울철장에 자올림픽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북남 실무 회담이 2월 27일 관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서 쌍방은 우리측이 이번 겨울철장에 자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하는데서 나서는 실무적문제들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공동보도문에는 제12차 겨울철장에 자올림픽경기대회에 우리 민족장에 자올림픽위원회대표단과 선수단이 참가하는 문제, 래왕경로와 시기가 반영되어있으며 남측이 편의를 보장한다는데 대하여 밝혀져 있다.

또한 북측의 이번 겨울철장에 자올림픽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적문제들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한다고 지적되어 있다.

본사기자

반외세자주화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가 조선에 대한 일제의 날강도적인 식민지배를 반대하여 전민족적인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섰던 때로부터 10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3.1인민봉기는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반일애국항쟁이었다.

지난 세계초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중세기적인 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고 조선인민에게 비참한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 밑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아온 우리 민족은 쌓이고 쌓인 울분과 원한을 1919년 3월 1일 전민족적인 반일항쟁으로 폭발시켰다. 평양에서 태어난 반일투쟁의 불길은 삼시에 전국 13개 도를 모두 휩쓸었으며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

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봉기자들은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일제군정의 야수적인 총칼탄압에 굴함없이 맞서 싸웠다. 우리 나라 반일민중해방운동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3.1인민봉기는 외세의 지배와 옥압통치를 용납치 않고 그에 목숨바쳐 항거하는 조선민족의 높은 자주정신과 애국적기개, 불굴의 의지를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봉기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각성을 높여주었으며 세계과외압박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고무적영향을 주었다.

3.1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근한세기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러갔지만 우리 겨레가 그날에 넘긴하였던 민족적자주권을 아직 전민족적범위에서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해방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

을 강점한 미국은 오늘날도 우리 민족의 분열과 대조선지배전략을 추구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군사적지배를 강화하면서 북남대결격화와 북침을 노린 전쟁불장난소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다.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모처럼 화해의 바람이 불고있는 이 시각에도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달리고있다. 지난날 우리 겨레에게 해어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쭉날쭉한 일본도 그 엄청난 죄악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할 대신 침략력사를 외곡하면서 재침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의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력사교과서의곡과 《독도령유전》 주장, 야스구리진자참배소동 등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군국주의는 더이상 망령이 아니라 위험한 침략실체로 부활하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3.1

인민봉기참가자들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이어 안팎의 분열주의호전세력의 반외세전쟁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 나가야 할것이다.

온 겨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중간행동을 저지시키고 우리 민족내부에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며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미국의 책동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에 한사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또한 침략력사를 외곡하며 조선반도에 군사적간섭의 마수를 뻗히려는 일본의 범죄적기도를 폭로단죄하고 반공화국적대시책들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반외세자주화운동을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통일의 합성이 삼천리에 높이 울릴 감격과 환희의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명성

조국소식

제33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 진행

제33차 김책공업종합대학 과학기술축전이 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다.

기계공업, 정보기술, 금속채취, 에너르기, 기초과학 등 9개 분과로 나뉘어 과학기술성과발표회 및 전시회형식으로 진행된 축전에는 대학의 교원, 연구자, 박사원생,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조선로동당의 과학기술중시선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지난 1년간 중요부문 기술공화들을 빨리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현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번 축전에는 경에 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신발공업에서 레이자의 응용》, 《평양버섯공장 통합생산체계》, 《무계도

전차차탈구멍가공중심반》 등과 우리의 원료와 자재, 설비에 의거하는 《초립계탄산가스에 의한 수지발창의 발포기술》, 《만능수지고기배설계 및 건조공정확립》, 《기능수제조기》를 비롯하여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실현에 크게 기여한 200여건의 과학연구성과들, 첨단기술제품들이 출품되었다.

축전에서는 재료공학부에서 출품한 《80hp트랙도르 베이니트구상용연주철차》가 특등을 하였으며 기계과학기술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금속공학부, 선박해양공학부, 물리공학부, 광업공학부, 계산학부 등의 교원, 연구자들이 내놓은 10여건의 제안들이 1등으로 평가되었다.

23일에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게 중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식이 있었다.

본사기자

개성조선우표전시장 개건

개성조선우표전시장이 훌륭히 개건되었다. 풍치수려한 송악산기슭의 고려박물관과 어울리게 일떠선 전시장에는 우표보관실과 우표, 엽서보급전시장 등이 새롭게 꾸려져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개성조선우표전시장을 종합적인 우표보급전시 및 봉사기지로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같이 새기고 이곳 작업원들은 자재의 힘으로 전시장을 최단기간에 개건할 목표에 힘찬 전투를 벌리었다.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면서 조선식합각지붕보수공사와 조경장치, 내부장식을 비롯한 마감공사를 일체계획대로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전시장에는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내용을 반영한 우표들과 불멸의 꽃 김정일화를 형상한 우표를 비롯한 수천종의 우표와 엽서들이 시기별, 종류별로 특색있게 전시되어있다.



올해를 강철중산성으로 빛내일 일념안고 —김책철련합기업소에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남조선단체가 규탄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2월 24일 반트럼프, 반미투쟁본부가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새로운 반공화국제재와 북침행진책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언자들은 트럼프가 도전적인 발언으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며 전쟁연습을 통해 북을 침략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차오르는 때에 미국이 사상최대의 《대북제재》를 실시하며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있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온 민족은 미국이 북침전쟁연습을 완전히 중지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갈 때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발표되었다.

회견문은 트럼프가 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을 더욱 로골화하며 발광하고있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남조선단체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규탄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이 2월 22일 서울에서 일본의 《다게시마의 날》 철폐 및 남조선일본 《어업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규탄집회들을 진행하였다.

독도사랑운동본부는 평화포럼장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이 즉시 《거짓독도의 날》을 철폐할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아베정부가 력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한 영토인

트럼프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단합을 파란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으며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주범이라고 막연하고 회견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쟁미치광이가 트럼프의 파쇼적광풍은 이남민중과 우리 민족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켜 자기자신을 과멸시킬것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이다. 트럼프가 전쟁광풍을 부릴수록 우리의 반트럼프, 반미반전운동도 더욱 거세어질것이다.

트럼프의 오만은 우리 민족을 정의와 평화를 위한 결정적투쟁으로 부르고있다.

트럼프와 정면으로 맞서 그를 퇴진시키는것과 함께 다시는 이런 망나니정상배가 나타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것이다.

투쟁하는 우리 민족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본사기자

통일의 암초인 보수패당을

뿌리채들어내자

재증조선인청년협회 대변인담화 발표

재증조선인청년협회 대변인은 반민족적, 반통일적대결책동에 미쳐날뛰는 남조선의 보수적패당을 단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은 《민족의 독버섯이 통일의 암초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을 뿌리채 들어내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홍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련일 《정부가 북의 교환전술에 넘어가 유엔대북제재망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우를 범하고있다》, 《북핵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반복은 핵개발축사절단에 불과하며 이는 명백한 리적행위》, 《정부가 북의 위장평화공세에 속아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오하러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는 친북정책을 추진하고있다》고

피해를 듣고있다.

이런 악다구니질을 해대고있는 홍

준표란놈은 남조선에서도 《미친 트럼프처럼 함부로 너두리질하면 대통령이라도 될줄 아느냐》는 욕을 치며고도 거짓과 외곡을 받먹듯 하여 《결례물고 말하는 홍준표》, 《편대홍준표》, 《홍기호적》, 《강대홍준표》, 《개쓰레기 홍준표》, 《청산리야 할 대결적대, 분별적대홍준표》로 각계층의 규탄을 받고있다.

담화는 미국의 사타구니와 분열기생하는 보수패당에게는 날로 고조되는 북남화해와 통일기운이 악몽으로 죽을일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라와 민족의 지향과 요구는 안중에도 없이 미국장군의 장단에 맞추어 지랄발광하는 보수패당이아말로 민족성원으로서의 체모나 지각, 초보적의같은것은 표몰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천하의 인간쓰레기들, 동족대결로 자기들의 권력지반과 이익을 만들기에 환장할대로 환장한 역적무리들이라고 담화는 규탄하였다.

담화는 대결광신자들이 구린내나는 주둥이를 함부로 놀리며 공화국을 헐뜯어떨수록 극도의 궁지에 몰린 저들의 가련한 처지와 반역적정체만을 드러내게 될것임을 차렷질것은 온 민족의 지주와 규탄, 력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강조하였다.

담화는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민족의 독버섯이 통일의 암초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을 뿌리채 들어내고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단합된 힘으로 올레에 거이 부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가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앞당겨나가자

화해와 단합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봉화대에 타올랐던 봉화는 꺼졌다. 그러나 올림픽경기대회를

꺼지지 말아야 할 소중한 불길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끝났다고 하여 화해와 단합의 불길을 꺼버릴수는 없다. 얼마나 소중한 화해와 단합의 불길인가.

지금의 화해분위기는 거의 10년만에 모처럼 다시 마련된 것이다. 남조선에서 리명박《정권》이 출현하여 조선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이 불신과 대결로 뒤바뀌고 군사적충돌의 아슬아슬한 위기도 겪었다. 그런데 리명박의 뒤를 이어 집권한 박근혜대 《정권》은 선입자의 대결통치를 더욱 용가하였다. 나중에는 6.15 자주통일시대의 육두문자로 남아있던 개성공업지구마저 폐쇄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이 오랜 세월 통일에도 나아가지 못하고 불신과 대결의 수렁에서 헤매인 북남관계였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더욱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막대한 현실로 되게 되었다. 지난해에 전세계가 조미관계를 지켜보면서 전쟁이 터질가하여 우려하고 지어 《3차세계대전》이 터질수 있다고 파국적위험을 경고해나선것

계기로 우리 민족이 지퍼올린 화해와 단합의 불, 평화의 봉화는 꺼지지 않았다.

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던 조선반도에 올해에 들어와 모처럼 찾아온 화해와 대화의 국면이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바라는 겨레누구나 반기고 전세계가 박수갈채를 보내오고있는 귀중한 화해의 불길인것이다. 이제 이 불길이 사그라진다면 조선반도는 다시 대결과 긴장

화해와 관계개선은 대세의 흐름이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타오른 화해와 단합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퍼올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가려는것은 온 겨레의 막을수 없는 열망으로, 지향으로 되고있다.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의 나날 민족은 하나이고 단결하면 큰 힘을 낼수 있다는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느낀 우리 겨레는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확대되기를 바라고있다. 남조선의 조미관계를 지켜보면서 전쟁이 터질가하여 우려하고 지어 《3차세계대전》이 터질수 있다고 파국적위험을 경고해나선것 《화해와 관계개선의 흐름을

의 어둠에 휩싸이게 된다. 민족의 화해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우고 북남관계는 다시는 헤어 나오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것이다.

하기에 화해와 관계개선의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것이다. 여기에 북남관계개선의 밝은 전도가 있고 민족운명개척의 밝은 미래도 있다. 화해와 관계개선은 이제 조선반도의 막을수 없는 대세의 흐름으로 되었다. 누구도 조선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발걸음을 멈추어 세울수 없다.

북과 남은 소중한 민족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관계개선에 나아가지기 위하여 보다 책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것이다.

이어 통일에로 가자.》는 목소

본사기자 김련옥



세界的 이목이 집중되었던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서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단합된 힘으로 민족의 존엄과 위용을 널리 과시하였다.

우리 민족은 하나임을 시위하며 통일을 앞세우고 보부당당히 공동입장하기도 하고 북남태권도합동출연으로 민족의 기개와 역센 힘, 슬기도 보여주었다.

독도가 그러진 통일기를 보관듯이 휘날린것도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의 나날에 꽃피는 아름다운 일화이다.

원래부터 통일기에는 독도가 새겨져있었다. 독도가 명실공히 조선민족의 령토일진대 통일기에 독도가 그려진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그런데 체질약속에 틀들어있는 일본은 집요한 침략근성 그대로 독도가 저들의 땅이라고 우기면서 이번 올림픽경기대회에서 독도가 새겨진 통일기가 휘

날리지 못하게 갖은 방해책동을 놀았다.

그러나 경기장들에서는 독도가 표기된 통일기가 계속 휘날리었다. 그 기발을 민족의 존엄안고 힘차게 휘날린것은 공화국의 응원단이었다. 올림픽을 앞두고 북과 남의 단일팀이 다른 나라들과 진행한 너자빙상호케이경기장에 독도가 새겨진 통일기가 나뭇기

독도와 통일기

자 오만방자한 일본은 《독도가 그려진 《한》 반도기를 절대로 수용할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꾀변으로 가득찬 《합의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일본이 그러거나 말거나 관람석에 앉은 공화국의 응원단은 통일을 더욱 세차게 휘날리며 《우리는 하나입니다. 《조국통일》을 목이 쉬도록 웨치었다.

이 사실에 접한 남녘의 각계층 주민들은 《독도가 빠져 아

쉬웠는데 대신 북응원단이 독도가 새겨진 《한》 반도기를 흔들었다.》, 《북응원단이 독도가 들어간 《한》 반도기를 고수했다. 그 기발을 민족의 존엄안고 힘차게 휘날리었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당당하게 웨친것은 응원단성원들이 아니었다. 올림픽경기대회를 축하해주기 위해 남녘에 파견된 공화국의 예술단도 공연무대에서 독도는 내 조국이라고 긍지높이 노래불렀다.

이에 대해 남녘의 언론들은 북의 예술단이 8일 강릉에서 진행한 첫 축하공연때 노래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에서 《제주도 한나산도 내 조국입니다》라는 구절을 《한나산도 독도도 내 조국입니다》로 고쳐 부른데 대해 보도하면서 《일본이 올림픽을 정치에 리용한다고 하면서 고고했으나 이에 개의치 않고 다 음공연에서도 또다시 불려 일본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항의에도 북측단장은 한나산과 독도도 내 조국이라고 노래하였다.》, 《한민족의 의미를 전달했다.》고 통쾌감을 표시하였다.

조상대대로 우리 민족의 땅인 독도는 통일기에만 아니라 겨레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있다. 독도가 그려진 통일기는 영원하다. 하나의 조선반도를 상징하는 통일기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이 가는 통일의 길에서 계속 자랑스럽게 나뭇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백두에서 하나로 우린 하나의 겨레 헤어져서 얼마나 눈물 또한 얼 마였던가. 잘있으라 다시 만나요 잘 가지라 다시 만나요 목매여 소리칩니다 안녕히 다시 만나요

1992년에 공화국에서 창작된 노래 《다시 만납시다》이다. 이 노래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 동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누구나 한번 들으면 가슴울렁이게 하고 부르면 또 부르고싶어지게 하는 노래이다. 한것은 이 노래에 갈라져 사는 우리 민족의 아픔, 다시 만나야 한다는 통일의 절박성, 뜨거운 민족애, 혈육애가 어려있기때문이다.

북과 남이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새 력사를 써나가던 지난

높아진 민족의식, 통일의식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끝났지만 북과 남이 함께 웨친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함성은 끝없이 메아리치고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말까지만 하여도 불과 남이 당장 마주칠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조선반도였다. 대결과 불신의 악순환만 거듭되던 이 땅에 오늘과 같이 화해와 단합의 뜨거운 열풍이 차넘치게 된것은 전적으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공화국의 대담하고 성의있는 의지와 따뜻한 동포애, 민족애가 안아온 결실이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고 의의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 겨레는 오래전부터 견우와 직녀에 대한 애뜻한 전설을 전해오고있다. 하늘의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살고있는 견우와 직녀가 해마다 칠월칠석(음력 7월 7일)이 오면 은하수에 놓여진 《오작교》를 통해 간격적인 상봉을 하군 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전설은 청춘 남녀의 불행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동시에 외세에 의해 우리 겨레가 오래도록 당해오고있는 분열의 고통과 통일소망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기도한다.

한평생 민족의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밤에도 일군들에게 칠월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전설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우리 겨레가 분단민족으로 살고있는 고통에 대하여, 조국통일을 꼭 이루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그러도 간곡히 교시하시었다.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갈라놓은것이 별나라의

절세위인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펼쳐졌다.

북과 남이 서로 손을 맞잡고 의의있는 합의를 맺어 마련하였으며 여러해째 막혀있던 북남사이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다시 열리고 그 길로 화해와 단합의 불길이 노드쳐나아갔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는 불과 보름남짓하게 진행되었지만 이 짧은 나날에 우리 겨레모두의 민족의식, 통일의식이 비상이 높아졌다.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북과 남이 통일을 앞세우고 공동입장하고 너자빙상호케이종목에서 북남단일팀이 무어졌으며 공화국의 예술단과 선수단, 응원단이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강릉과 평창, 서울 등 남조선의 곳곳에서 북과 남의 겨레가 노래 《반갑습니다》를 부르면서 서로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었다.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다. 공단이 공연과 경기, 열띤 응원을 펼친 장소들에 나온 남녘의 주민들은 《《우리는 하나이다.》 라는 구호가 북응원단에서 먼저 나오고 같이하게 됐을 때 울컥했다.》, 《북과 우리는 원래 한 민족이었다고 말에게 설명해주

포악한 왕이라면 이 땅, 이 겨레를 둘로 갈라놓은것은 침략적인 외세이다. 그렇게 갈라져 살아온지 어언 70여년, 겨레의 통일년은 하늘에 닿았다. 이제 더이상 미룰수 없는 통일이다.

민족의 통일소원 절절해서인 가 이번엔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단상 《통일오작교》

넘어 북에서 남으로 화해의 《오작교》가 놓아졌다. 그 다리를 건너 남녘에 가서 상봉의 기쁨과 민족의 정을 꽃피우고 화해와 단합의 불씨를 지닌 공화국의 예술단,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들이다.

은 겨레가 환호하고 세계가 감동하는 겨울철올림픽의 화해와 단합의 꽃을 어떻게 피우는가를 전세계가 지켜본 감동의 낮과 밤들이었다.

머구름이 드리워져있던 북남

었다.》고 심정들을 토로하면서 민족이 하나가 될 통일희망으로 가슴들먹이었다. 한달동안 같이 지내면서 정이 들대로 든 너자빙상호케이 단일팀의 북과 남의 자매들은 헤어지는 날 서로 포옹하고 격려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리었다.

북남이 화해하고 관계개선을 지향해나가는것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침략적인 외세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한

층도 안되는 보수세력들이 민족공동의 대사를 파탄시켜보려고 갖은 비방을 일삼으며 발악적으로 날뛰었으나 민족은 더욱 하나가 되었다. 통일의식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관계개선을 힘있게 추동해

말한 남조선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올림픽개막식에서 이루어진 북남선수단의 공동입장과 단일팀구성에 대해 《잘된 일》이라고 한 응답자수가 개막전에 비해 훨씬 더 늘어난것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더욱 높아진 겨레의 민족의식, 통일의식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관계개선을 힘있게 추동해

본사기자 리철민

관계에 밝은 햇빛이 비쳐들게 되었다.

누구도 예상 못했고 뜻밖에 펼쳐진 조선반도의 극적인 화해 흐름.

평창의 하늘가에 통일무지를 걸어주고 북남이 만나도록 화해와 통일의 《오작교》를 놓아 주신분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이다.

그이의 따뜻한 정이 없다면, 그이의 확고 부동한 통일의지, 북남관계개선의지가 없다면 어찌 오늘의 이

특기할 사변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는가.

우리 민족은 돌이 되면 살수 없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우리는 하나이다. 이것은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나날 북남의 온 겨레가 감동깊이 다시 느낀 진한 민족적감정이요.

이번 겨울철올림픽의 화해 불씨 꺼지지 않고 북남관계개선의 더욱 큰 불길로 타번지게 하 는것, 이것은 지금 이 시각 겨레 전체가 지켜본 감동의 낮과 밤들이었다.

본사기자 서희

《다시 만납시다.》 평창에서도 우리 겨레는 잡은 손을 놓지 못하며 이렇게 뜨겁게 웨치었다. 너자빙상호케이 북남단일팀선수들이 작별의 마당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서로 손을 잡고 부둥켜안으며 《꼭 다시 만납시다.》라고 말할 때 공화국의 응원단성원들도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남녘인민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며 다시 만나자고 굳게 약속하였다.

노래에도 있는것처럼, 북남의 동포들이 약속한것처럼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한다. 만나야 불신의 감정이 풀리고 만나야 통일이 온다. 만나면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의 나날에 온 겨레가 똑똑히 절감하였다.

본사기자 김철민

화해와 단합을 추동하는 노래

《다시 만납시다》

통을 매일 매 시각 느끼며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꿈과 같이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는것이 얼마나 더욱 참기 어려운 아픔이 아닐수 없다.

헤어지지 않고 계속 같이 있고 함께 모여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겨레의 이 마음은 그대로 노래가 되어 울려떨어졌었다.

노래 《다시 만납시다》는 기

강릉과 서울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공화국예술단의 축하공연의 맨 마지막순서로 오른 노래가 《다시 만납시다》이다. 노래가 울리면 장내는 더욱 울려번지곤 하였다. 공화국의 응원단이 남녘인민들을 위해 펼친 야외공연들에서도 울린 이 노래는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전쟁의 랭기를 몰아낸다

얼마전 미의회 청문회에서 국가정보국과 중앙정보국, 태평양지역 미군 총사령부의 수장들은 《북핵의 목표는 정권유지가 아니라 조선반도적화통일》이라고 악청을 들이쳤다. 도이칠란드에서 열린 북핵안보회의에 참가한 미상원의원 리쉬도 《〈코피작전〉은 없다. 무력이 사용되면 가장 제약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트럼프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너스레를 부리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핵동력항공모함전함과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팔지도 마려웠던 대화평화분위기가 4월에 들어가면서 고 또다시 긴장격화로 치달을수 있다는 《4월위기설》까지 나돌고있는 형편이다.

승어가 되면 망종도 편다고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고위당국자들도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재개에 대해 《장제자를 립킴이 끝나면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떠들어댔다.

이 모든것은 조선반도의 화해와 평화흐름에 역행하는 범죄적인 책동이다.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마련된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대화국면이 지속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올림픽평화가 꺼지는것과 함께 《북남관계의 해빙기》도 끝났기라고 공언하면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여 정세를 또다시 첨예한 전쟁국면에 몰아넣으려 발광하고 있다. 얼마전 놀다리미치 광이 트럼프가 대조선제재효과가 없을 경우 군사적침략을 감행할 목언을 제쳐낸 것은 전쟁연습재개의 엄중성과 위협성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북남대결의 장본인이고 통일의 근

본장애물이며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침략전쟁의 원흉이다.

문제는 북남관계개선위기를 살려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남조선당국이 그 과격적 후과에 대해 뻔히 알면서도 미국의 전쟁책동에 동조해 나서는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올림픽기간 합동군사연습을 중단한 사실자체가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 미치는 엄중부정적후과를 인정할것이나 다름없었다.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합동군사연습재개도 철회하지 못할 리유가 없다.

미국과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이 끝날때 재개된다면 북남관계는 물론 조선반도정세에 걸갈울수 없는 과격으로 차단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도 합동군사연습의 재개를 막고 화해와 평화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는 한다는 여론이 계속 높아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무분별한 합동군사연습재개가 초래할 엄중부정적 후과에 대해 똑바로 대대보고 심사숙고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주권국가에 대한 무모한 선전포고

최근 조선반도에서 북남관계개선분위기가 고조되고 우리 겨레의 통일년일이 어드레보다 높아지고있는 속이와 관련하여 미재무성장관, 미국우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대변인 등 고위당국자들은 《북조선을 완전히 고립시키는것이 재해목적》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지어 트럼프까지 나서서 《특정국가에 부과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했다.》,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매우 거친 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폭언을 늘어놓았다.

이뿐이 아니다. 미국은 유엔안보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에 《불법상밀수활동》을 막기 위한 《제재지정제안서》를 제출한다. 공화 및 령해상에서 조선과 거래하는것으로 의심되는 선

박들에 대한 검색문제를 논의한다. 조선의 해상무역활동감시를 위해 서태평양에 미해안경비대를 파견한다 하며 부산을 괴뢰대고있다.

이러한 망동들은 공화국이 세계가 공인하는 전략국가로 부상함으로써 조미핵대결에서 여지없이 참패하게 될 미국의 단말마적발악으로서 모처럼 마련된 북남관계개선분위기를 해치고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려는 악랄한 도발책동이며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는 용납 못할 침략전쟁행위이다.

지금 북과 남사이에 관계개선의 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는 장본인은 다른아닌 미국이라는 사실이 더욱 명백히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

난여론이 높아가자 트럼프 패당은 극도로 당황망조해하고있다.

미국은 또다른 추가제재들을 통해 어떻게 해서나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북남관계개선흐름을 되돌려놓으며 어중이떠중이들을 반공화국제압박공조에 몰아대어 수세에 몰린 저들의 체면을 세워보려 하고있다.

문제는 트럼프가 《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그것은 매우 거친 행동으로서 전세계에 매우 불행할수 있다.》고 쉼채대면서 감히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고 어처구니없이 높아지고있는것이다.

이미 공화국은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제재압박책동을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유린말살행위로, 선전포고로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기로하는 미국 규탄 기자회견

얼마전 스위스에서 열린 제37차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 참가한 남조선외교부장관은 《평창의 정신이 북인권문제에 대한 개선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이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 또다시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걸고 들었다.

이것은 현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재를 뿌리는 반민족적행위이며 저럴이 난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을 부추기는 풍수없는 대결망동이다.

지금 온 겨레는 이번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의 긴장완화 열망과 공동된 의지가 안아온 화

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나갈 열의에 찬탄되어있다.

세계의 여론도 조선반도에 이어 극적으로 마련된 화해와 협력의 기운을 고조시켜

나서 《북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니 튀니 하며 형실수설했는가 하면 유엔총회에선 조작된 《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도록 하는 등 《인권》을 구실로 한 동족대결책동에 앞장서

대결광신자들의 히스테리적인 광기

지난 2월 24일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은 공화국의 고위급대표단이 내려가는 동일대교입구도로에서 밤새껏 앉아버티기를 하였으며 25일 아침에는 보수단체 성원들까지 끌어모아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고 《북대표단의 방남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악담질을 하면서 분별없이 날뛰었다. 이에 뒤질세라 《바른미래당》

기로 북과 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관계개선의 열기는 더욱 높아지고있는 반면에 동족대결을 추주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지지력은 계속 떨어지고있다.

이에 다급해진 보수패거리들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아나섬으로써 무너져가는 보수층을 집결시키고 어떻게 하나 잔명을 부지해보

유치한 모략광대극

《히든 코브라》로 명명된 《북조선해커조직》에 의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무수한 경보라는데를 발령하였다.

망에서 튀면 끝투기도 번다고 섬나라 일본족속들도 최근 주요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체코》 해킹사건을 비롯하여 자국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핵, 미사일개발자금의 확보》를 담당할 《북사이버지도부》 소속 180부대일것이라고 덩달아 고아대고

한편 남조선호전세력들도 북의 해킹능력이 청와대방화벽도 뚫을수 있을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사이버공격의 범위를 미국, 일본, 유럽, 중동 등 전세계에로 확대하고있으며 유사시 남조선과 미국, 일본의 군사시설, 전력 등 기반시설들을 먼저 마비시킬것이라고 하면서 공화국의 《사이버공격위협》을 크게 여론화하고있다.

실로 유치하고 비렬한 반공화국모략광대극이 아닐수 없다.

정보과학기술이 급속도로

이 아니다.》, 《과거 자신들의 언행을 망각하고 국제적인 정세도 모르고 벌리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자유한국당》것들을 신랄히 조소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넷들에도 《구린 인간들은 머문 자리도 더럽다.》, 《동료(쓰레기)는 데리고 가라.》, 《위생실도 못가고 지졌는데 허탈해하는 모습 꼴불견이다.》 등 보수패당들을 야유조소하는 수천여건의 비난글이 가득차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적패당이 히스테리적인 동족대결망동을 부러릴수록 죄는 더욱 커지고 박근혜와 같은 수처스러운 운명에 처하게 될뿐이다.

보수패거리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화해와 단합, 통일으로 나아가는 민족의 힘찬 발걸음을 멈추어세울수 없다.

본사기자 김영진

피할수 없는 가련한 운명

남조선에서 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 다스회사의 실소유자의혹사건 등 리명박이 저지른 범죄행위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이가 구속을 면할수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알려진것처럼 정보원《특수활동비》상납사건은 리명박집권시기에 정보원이 막대한 액수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섬겨바친 뇌물수수 및 횡령의혹사건이며 다스회사의 실소유자의혹사건은 리명박역도가 1987년에 설립된 현대자동차부속회사인 다스회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계좌를 설치하고 2007년

의 실소유자의혹사건 등의 주범이 리명박이라는것을 또 다시 실토했다.

이로 하여 지금껏 범죄사실들이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줄곧 우겨대던 리명박은 더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었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남조선사법당국은 3월초에 리명박을 무조건 소환조사하겠다고 버르면서 역도의 목줄을 바짝 조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범죄사건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리명박을 구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으며 언론들은 리명박이 박근혜처럼 쇠고랑을 차고 류치장신세를 지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평하고있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고 돈에 환강이 되어 온갖 범죄를 저지른 부정부패의 왕조가 저미를 잡히게 된것은 필연이며 피할수 없는 운명이다.

돌이켜보면 미국산 미친 소고기 수입과 4대강사업, 《자원외교》와 언론탄압, 《MB》악법, 《천안》호보략사건, 정보원《특수활동비》횡령사건, 민간인사살



은세사건 등 리명박이 집권기간에 저지른 최악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리명박의 범죄행위들은 인민들의 머리에 군림하여 동족대결과 독재통치를 일삼고 한갓 섬부당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리용당하여 《국정》을 통략하면서 온갖 부정부패행위를 감행한 박근혜역도의 죄악과 한바리에 실어도 결코 짝지 않는다.

사실들이 증명하는것처럼 리명박, 박근혜보수패당은 하나같은 왕도죄주리며 천하의 파렴치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과 그 패거리들은 죄의식과 반성의 기미는 꼬물꼬물도 없이 어떻게 하나 더러운 목숨을 건져보려고 법적대응에 대해 떠들면서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

이것은 뻔뻔스러운의 극치이며 《죄책청산》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박근혜는 이미 지은 죄로 하여 쇠고랑을 차고 류치장신세를 지고있다. 리명박의 운명도 결코 달리 될수는 없다.

가만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의 처

남조선단체

핵전쟁위기를 몰아오는 전쟁연습재개를 반대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서울의 미국대사관 앞에서 북침합동군사연습재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었다.

앞에서는 《대화》를 떠들고 뒤에서는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 미국의 이충적인 태도를 규탄한다 그들은 절규하였다.

그들은 《북핵문제》는 제재와 압박, 군사적행동으로 절대로 해결할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은 그 모든

남조선단체

것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각계층 시민들이 3월 24일 광화문광장에서 반전평화를 위한 촛불투쟁에 떨쳐나서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집회도중 참가자들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제에 대한 중요심을 안고 미국대사관을 향해 반미반전구호를 높이 웨쳤다.

본사기자

남조선단체

김장호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이 생산된다

최근 공화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평양의 거리를 경계하게 달리며 새형 무궤도전차들을 가리켜 《아름답고 문명한 평양의 얼굴》이라고 감탄하곤 한다.

보기만 해도 눈길을 끌고 미남자처럼 환한 멋쟁이 무궤도전차들은 현대적으로 개진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것이다.

얼마전 우리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꾸러진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았다.

공장에 들어서니 지난 시기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던 천지개벽되었다는 것이 한눈에 알려졌다.

우리와 만년 김형성지배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라일에 이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계기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공장의 종업원들이 기본건설대상들에 대한 기초착각과 박토처리, 골조공사와 지붕철관기와의 유기, 내외부미장공사를 비롯한 방대한 건축공사를 붙이 번쩍 나게 끝내고 구내포장과 수종이 좋은 나무와 꽃관목, 새 품종의 잔디를 심어 공장의 수립화, 원림화를 실현하는데 대해 들려주었다.

우리는 가공공장, 전동기공장, 전차조립공장, 대수리공장 등을 돌아보았다. 생산현장바닥을 예복시수지칠감으로 마감하고 첨단기계설비들을 그르려 갖추어놓은 공

장은 보기만 해도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우리는 이곳 기술자, 로동자들이 과학기술을 앞세워 무궤도전차조립공정을 원격조종화하고 열처리공정, 전해도금공정, 전동기합침건조공정, 전력공급계통을 자동화한데 이어 철심유도로와 먼지외선가열장치를 받아들여 로력과 전력을 절약하고 조종특성이 좋은 전동기를 새롭게 설계제작하여 무궤도전차의 견인력을 1.2배로 높인데 대해 전해들을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한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통합생산체계가 구축된 통합생산지령실에 가보아도, 종업원들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지식형의 기능공들로 키우는 과학기술보급실과 현대적이며 문화성이 보장된 무궤도전차들에 대한 도안장작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훌륭히 꾸러진 도안장작실에 가보아도 지식경제시

대의 요구에 맞게 새 기술을 도입하여 세계를 앞서나 가려는 공장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애국의 열정이 력력히 느껴졌다. 더욱 감동적인것은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공장을 현대화하는 속에서도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개발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자체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간데 대한 이야기였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류전기재와 전동기생산에 필요한 차를구멍가공중심반과 견인—속도시험대, 알바퀴열미끄럼시험대, 차체열벽성형기, 진공가압합침설비를 비롯한 현대적인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하고 필요한 설비들을 보충하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개발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새형의 무궤도전차 개발됨으로써 력계운수부문에 서

른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들을 보시며 우리 로동계급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어려있는 자랑스러운 창조물이라고, 불수록 힘이 나고 기분이 좋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고 하면서 김형성지배인은 이렇게 말하였다. 《공장을 개건현대화하는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이에 만족할수 없다.

세계와 경쟁하고 세계를 앞서나간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공장을 더욱 현대적인 무궤도전차생산기지로 전변시키고 인민을 위한 더 좋고 훌륭한 무궤도전차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는 것이 우리 공작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본사기자 홍 범 식



최근 사람들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후과를 미치고 있는 환경오염이 세계적인 문제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발전된 공업국가들에서나 볼수 있었던 산성비현상이나 《죽음의 먼지》로 불리는 《스모그》현상들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확대되어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특히 인구가 집중되어있는 대도시들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는데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그 원인이 공업지역의 대기오염과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자동차들이 내보내는 배기가스속에는 이산화탄소와 산화질소, 탄화수소계화합물들, 연을 비롯

한 유해물질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있는데 이것들은 도시오염을 일으키는 기본원인으로 되고있다. 이로부터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특색교통》(오염이 전혀 없거나 대단히 작아서 생활환경의 요구에 맞는 교통형식)수단을 적극 개발하고있다.

도시의 맑은 공기와 무궤도전차

실제로 지하철, 자기방석열차, 궤도전차, 천연가스 혹은 액화가스자동차, 수소자동차, 메틸 및 에틸알콜자동차들을 들수 있는데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배기가스를 내보내지 않으며 운전할 때 소음이 적고 운전조작이 비교적 간단한 무궤도전차가 중요한 도시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있다. 평양에서는 문화적이고 현대적인 무궤도전차들이 위

없이 달리고있다. 도시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무궤도전차가 기본교통수단의 하나로 되고있는것이다. 평양에서 무궤도전차가 달리기 시작한것은 1960년대초부터이다. 주체49(1960)년 8월 당시 평양에서는 유류교통식이 있었는데 이날 위대한

그때 벌써 도시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무궤도전차가 거리로 달려가는데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여있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사람들은 평양을 《공민국의 도시》라고 부르고있다. 어디가나 녹음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도시, 항상 맑고 깨끗한 공기가 흐르고있는 평양의 오늘은 바로 이렇게 마련된 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남



유치장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근로자들

《사랑의 다리》와 《죽음의 다리》

얼마전 이름있는 외국의 한 박사가 쓴 책을 보던 나는 생각해 잠겼다. 그 책에는 미국 샌프란체스코에 있는 《금문교》라는 다리에 대하여 서술되어있었다. 든든하고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그 이름과도 같이 황금의 문에 들어서게 한다는 다리...

그러나 나의 눈길을 멈추게 하고 생각을 자극한 것은 이 다리의 곳곳에 《뛰어내리지 말라!》는 표말이 세워져있다는 대목이었다. 그것이 통행자들에게 주는 레서로 운 안전상 경고의 안내문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았다. 책에는 《...사람들은 이 다리를 가리켜 《죽음의 다리》라고 부른다. 살래야 살수 없어 이 다리에서 투신자살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되어 다리의 곳곳에 《뛰어내리지 말라!》는 표말까지 세웠다.》라고 써져있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아득한 옛날 사람들이 도랑이나 물웅덩이에 가로넘어선 진대나무무로 건너다니다가 차를 그것을 통행에 편리하도록 건너놓기 시작하여 다리건설의 시원이 생긴이래 유구한 세월이 흘렀다. 생산력의 발전은 다리건설

의 발전을 가져왔다. B.C. 40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 처음으로 돌아치다리가 건설되었다. 그후 고대로 마사람들은 아치다리의 력학적특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치의 추력에 견디는 기초와 기둥을 쌓고 쉐기모양으로 다듬어 아치를 쌓아 든든하고 안정된 다리를 놓았다. 야금기술이 발전하여 철다리를, 그후에는 세멘트가 나오면서 철근콘크리트다리가 나왔고 구조역학이 체계화되면서 오늘날 유명무명의 무수한 현대적다리들이 건설되어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의 편익과 복리에 명실공히 이바지해야 할 다리가 《죽음의 다리》로 불려오다니... 생각해 잠긴 나의 눈가에 는 눈이 솟아있었다. 그 다리와 그 표말이 삼삼히 안겨왔고 귀에 는 《뛰어내리지 말라!》고 웨치는 소리가 간간히 때로는 쿵개 확성되어 들려오는듯 싶었다. 오죽 살기가 험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삶과 미래를 버리고 투신자살의 길에 나서겠는가.

유적의 한 시인이 《세상은 작은 모래알속에서 해부된다.》고 하였듯이 이 다리야말로 미국을 투신해보게 되는 《작은 모래알》인 것이다. 미국의 한 신문은 《미국의 어떤 가나 실업자들, 집없는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이 우글거린다.》고 개탄했다. 그러나 《죽음의 다리》는 상식밖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보통상식으로 되고있는 것이다. 리 학 규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애국의 팟방울을 바쳐가는 어제날의 해외동포 >>>

기자가 김용신선생을 처음 만났을 때 올해 70살이라는 말을 알고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이에 비해 퍼그나 정정한것도 그렇지만 그 나이에 체육성의 국장사업을

말아본다는것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김용신선생의 앞가슴에서 빛나는 로력영웅메달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그의 성공적인생애에 대해 이야기한다.

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지 얼마 안되던 때 남달리 주먹이 센 그를 미워하던 일본인들이 그를 체육실로 끌고 들어가 못매를 안기었던 것이다. 15명이 한꺼번에 달려드는 바람에 그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체 쓰러졌다. 그날 밤 그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피라게 부르짖었다.

《우리 왜 남의 나라 땅에서 살면서 이렇게 수모를 받아야 하나요?》 그의 가슴속에서는 민족적 의분이 솟구쳐올랐다. 다음날 그는 일본학교를 그만두고 오사카조선고급학교로 전학하였다.

존엄높은 《조교》의 모표를 달고 그는 가슴을 짝쳐고 학교를 다니었다. 그의 소년시절은 이렇게 흘러갔다.

《이 할머니 너희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다. 고생만 하던 너희 아버지가 귀국선에 오를 때조차도 어머니수일을 못했구나. 그저 입던 옷가지들 손질해서 꾸러 보지만 한나를 돌려주었다.》

그때 어머니는 9남매의 맏이인 김용신선생에게 어려서부터 밥벌이를 시켜야 했던 수년동안 그 시절을 아른 마음으로 회고하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에 머리배를 잘라 신을 살아 울려도 지성이 모자랄것 같다고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김용신선생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렸을 때 일본땅에서 입은 머리의 상처에 흠집이 남아있었지만 가슴속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니다.》

작 펼칠수 있었다. 그후 김용신선생은 은혜로운 공화국의 품속에서 어엿한 일군으로 성장하였다. 그무렵에 공화국을 방문한 김용신선생의 어머니 입성희로인이 안상력거리에 새집들이한 아들네집을 찾아왔다. 살림방들을 돌아보며 어머니는 훌륭한 이 집을 나라에서 돈 한푼 받지 않고 그저 주었던달미나 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김용신선생은 그런 어머니의 심중이 헤아려졌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에 상처자국을 남겼어야 했던 그때를 잊지 않고있었다. 아들네 살림집을 돌아보고 난 어머니는 손자, 손녀들을 불러앉히고 말하였다. 《이 할머니 너희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해준것이 없다. 고생만 하던 너희 아버지가 귀국선에 오를 때조차도 어머니수일을 못했구나. 그저 입던 옷가지들 손질해서 꾸러 보지만 한나를 돌려주었다.》

그때 어머니는 9남매의 맏이인 김용신선생에게 어려서부터 밥벌이를 시켜야 했던 수년동안 그 시절을 아른 마음으로 회고하였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시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은혜에 머리배를 잘라 신을 살아 울려도 지성이 모자랄것 같다고 젖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김용신선생은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렸을 때 일본땅에서 입은 머리의 상처에 흠집이 남아있었지만 가슴속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김용신선생에게는 조국의 소중한 마음이 더더욱 가슴깊이 새겨졌다. 그는 결심했다. 하나 하나의 행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안겨주는 사회주의조국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는 애국자가 되겠다고... 그후 김용신선생은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청류다리(2단계)와 금문2동굴건설을 비롯한 건설장마대에 많은 설비와 지원물자를 보내주었으며 건설자들에 혁신과 위훈을 창조하도록 고무해주었다. 그는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여러가지 체육설비들과 기자재들을 나라의 체육발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였다. 이렇듯 그가 걸어온 인생의 자욱마디에는 애국의 소중한 마음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그의 애국적소행을 높이 평가하시며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자신의 존함인 모셔진 표창장도 수여해주시었을뿐 아니라 여러차례에 걸쳐 다른 나라들에 가는 공화국 체육대표단의 단장으로 내세워 주시었다. 나날이 더 해만 가는 어머니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깨끗한 마음을 안고 김용신선생은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걸어왔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수십년간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깨끗한 공민적양심을 바쳐온 김용신선생에게 또다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우리 가정에 돌려주신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사랑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영웅의 가문답게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자.》 김용신선생은 오늘도 자식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며 영웅메달의 값높은 무게를 안고 보답의 길, 애국의 길을 이어가고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마 음 속 의 상 처

누구에게서나 선망과 존경의 눈길을 받고있는 김용신선생이건만 그에게 남다른 마음속상처가 있었다는대 해 아는 사람은 많지 못하다. 김용신선생이 태어난 곳은 자본주의의 일방뿐이다. 일본 오사카에서 9남매의 맏이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민족적열의와 피눈물속에 소년시절을 보내지 않았던 안되였다. 소년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다. 또 한번은 이런 일도 있

리치며 그는 전기가 오지 않는것은 동네에서 우리 집뿐이어서 잘 보이지 않아 넘어갔다고 울먹울먹하며 말하였다. 어머니는 전기세를 물지 못해서 그런다고, 전기세를 내지 못한것은 우리 집뿐이 아니지만 조선사람네집이기 때문에 우리만 전등불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소년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다. 또 한번은 이런 일도 있

리치며 그는 전기가 오지 않는것은 동네에서 우리 집뿐이어서 잘 보이지 않아 넘어갔다고 울먹울먹하며 말하였다. 어머니는 전기세를 물지 못해서 그런다고, 전기세를 내지 못한것은 우리 집뿐이 아니지만 조선사람네집이기 때문에 우리만 전등불을 보지 못한다고 하였다.

소년은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았다. 또 한번은 이런 일도 있

소중한 조국을 위해

제일동포들속에서 사회주의조국에로의 귀국이 한창이던 수십년간 김용신선생의 마음속에서도 공화국의 품에 안기고싶은 욕망이 부풀어올랐다. 그 무렵에 그는 북청군의 고등공업학교를 나오고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운의 노래를 활

대학을 다니고 조국건설에 한몸 다 바치고싶었다. 이런 결심을 품고 그는 단신으로 공화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때가 김용신선생이 17살 나던 해인 1965년이었다. 귀국후 그는 북청군의 고등공업학교를 나오고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운의 노래를 활

대학을 다니고 조국건설에 한몸 다 바치고싶었다. 이런 결심을 품고 그는 단신으로 공화국으로 귀국하였다. 그때가 김용신선생이 17살 나던 해인 1965년이었다. 귀국후 그는 북청군의 고등공업학교를 나오고 주체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배운의 노래를 활



